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서영교*

1. 머리말
2. 阿旦城 戰役의 時空間 검토
3. 587~8년 고구려에 온 倭使
4. 倭의 신라 견제
5. 新羅王京 要塞化
6. 阿旦城 전투 그리고 신라의 반격
7. 맺음말

1. 머리말

551년 고구려는 羅·濟同盟軍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했다. 553년 신라는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마저 차지했다. 이후 한강유역은 통일기까지 계속해서 신라의 영역이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러한 학설은 역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필자도 신라 진흥왕대 한강유역 석권이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고, 한강유역의 영유가 백제-고구려-신라 순이라 도식적으로 배웠다.

* 중원대 박물관장

하지만 관련 사료에는 신라의 한강유역 영유가 진흥왕 이후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643년 당의 사신으로 고구려에 간 상리현장(相裏玄獎)이 연개소문에게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연개소문의 답변은 이러하다. “옛날에 수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신라가 틈을 타고서 우리의 땅 500리를 침략하였는데, 스스로 우리에게 침략하였던 땅을 되돌려 주지 않으니 아마도 그칠 수는 없을 것이요.”¹⁾

위 ‘隋人入寇時’에 대해 이병도는 551년의 10군 상실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²⁾ 물론 이병도가 이렇게 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수대(581년~618년)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기사는 590년대 초, 603년, 608년(2회) 등 총 4회이다. 모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기록이고,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병도는 신라가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기(598~615)에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는 기록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병도의 회의는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어 앞서 언급한 도식적 이해를 낳게 했다는 점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사료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한 학자가 직관으로 부정한 견해를 30년 넘게 충분한 재검토 없이 그대로 통설로 따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일례로 노태돈은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에게 “사실과 어긋난 바”를 말했다고 했다. 6세기 중반 고구려가 내분에 이은 북제 및 돌궐의 외침의 위기에서 신라에게 한강유역 상실한 사실을 짐짓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에게 수대에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 같다고 했다.³⁾

하지만 10년 전에 이미 이병도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긴장

1) 『자치통감』 권197, 정관18년(644) 봄 정월 조 “相裏玄獎至平壤, 莫離支已將兵擊新羅, 破其兩城, 高麗王使召之, 乃還. 玄獎諭使勿攻新羅, 莫離支曰(昔隋人入寇, 新羅乘釁侵我地五百裏, 自非歸我侵地, 恐兵未能已.)”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3년 정월 조에 같은 내용이 전한다.

2) 이병도, 『譯註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p.325, 註1.

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009, 76쪽.

속에서, 고구려 집권자인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을 맞이하여 외교 담판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의 침입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데서 불과 멀리 떨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의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⁴⁾

연개소문의 주장에 대한 상리현장의 답변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고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 고려전에 양자의 같은 대화의 내용이 전하고 있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⁵⁾

당은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세계제국’이었다. 특히 당태종대 당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운용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었다. 북방의 광대한 초원을 재패하고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토욕혼과 고창국을 장악했다. 연개소문이 상리현장을 만날 당시 당은 고구려를 침공하려 하고 있었다.

노태돈이 지적한 바와 같이 641년 5월 고구려를 방문했던 당의 직방랑중진대덕은 요하를 건너 평양으로 가는 도중의 주요 산천과 성곽 및 교통요지를 두루 살폈고, 고구려에 포로가 되어 남은 과거 수나라 병사들을 통해 고구려 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였다.⁶⁾

626년에 이미 당고조는 고구려와 신라·백제에 사신 주자사를 파견하여 서로 화친토록 했다.⁷⁾ 당제국은 삼국의 치열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각국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⁸⁾

4)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5) 『구당서』 권199, 고려전 “十七年, 封其嗣王藏爲遼東郡王、高麗王。又遣司農丞相裏玄獎齎璽書往說諭高麗, 令勿攻新羅。蓋蘇文謂玄獎曰「高麗、新羅, 怨隙已久。往者隋室相侵, 新羅乘勢奪高麗五百裏之地, 城邑新羅皆據有之。自非反地還城, 此兵恐未能已。」玄獎曰「既往之事, 焉可追論?」蘇文竟不從。”

『신당서』 권220, “於是遣司農丞相裏玄獎以璽書讓高麗, 且使止勿攻。使未至, 而蓋蘇文已取新羅二城。玄獎諭帝旨, 答曰(往隋見侵, 新羅乘勢奪我地五百裏, 今非盡反地, 兵不止。)玄獎曰(往事烏足論邪? 遼東故中國郡縣, 天子且不取, 高麗焉得違詔?)不從。”

6) 노태돈, 앞의 책 57~58쪽.

7) 『삼국사기』 권4, 진평왕 48년 조. 같은 책 권20, 영류왕 9년 조.

8) 일례로 『구당서』 권199, 신라전의 다음 기록은 주목된다.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이병도설에 문제를 제기했던 견해에 의하면 신라가 오백리를 차지한 시점을 수나라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수와 처음 전쟁이 있었던 598년이나 아니면 본격적인 침입이 있었던 612년 이전에 551년에 상실한 땅을 회복했었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회복 시기로 주목되는 때는 온달이 출정하였던 590년대 초라고 한다.⁹⁾

만성적인 전쟁이 지속되던 시기에 고구려 신라 사이에 국경변화가 없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고구려는 신라가 6세기 중반에 점령한 지역의 상당부분을 일시 회복했고, 고수전쟁기에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 생각된다.

552~3년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밀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¹⁰⁾ 진흥왕대 맺어진 그것은 진흥왕대에 파기되었고, 15년 이상을 가지 않았던 것 같다. 568년 신라가 북한산주를 폐치하고 남천주(南川州: 경기 이천)를 설치하고 동해안 방면에서도 비열홀주(比列忽州)를 폐치하고 달홀주(達忽州: 강원도 고성)를 설치했다.¹¹⁾ 한강 유역과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가 후퇴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590년 초반 평원왕의 아들인 영양왕대에 가서 고구려가 아단성(阿旦城)을 공격하기도 했다.

온달이 탈환하고자 했던 지역은 ‘한북의 신라군현’으로 이는 ‘계림현과 죽령이서’ 지역에 해당된다. 즉 551년 고구려가 상실한 10군 및 6군에 해당되는 전 지역이다. 10군의 범위는 철령에서 죽령에 이르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 해당되고 6군은 현재 서울과 양주를 비롯한 한강 하류 주변으로 추정된다.¹²⁾

온달의 전사가 의미하듯 고구려가 10군 및 6군을 모두 점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전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9)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10)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433쪽.

11) 『삼국사기』 권4, 新羅本紀 4 진흥왕 29년조.

12)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77~179쪽, 231~235쪽.

13) 노중국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그것의 탈환이 중요 과제였으며, 온달의 중군은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라 지적했다(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

이병도설을 반박한 설은 '연개소문의 언급'에 대한 논증과 온달의 아단성 전투의 목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단성 전투를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국경분쟁으로 한정해 보았다는 아쉬움이 있다.¹⁴⁾

아단성 전투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89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했다. 591년 11월 왜가 병력 2만을 구주(九州) 축자(筑紫)에 집중시켰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온달이 남진했다. 수의 통일, 왜의 축자출병, 아단성 전투 세 사건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井上光貞은 아단성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의 통일과 왜의 축자출병이 상호 연관성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591~595년 왜군의 군사행동은 수나라의 통일이 일으킨 파문의 하나이며, 595년 왜군이 구주 축자에서 철수하는 그 전년에 신라 진평왕이 수에 조공을 하여 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되는 등 한반도 삼국이 수나라의 책봉체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삼국의 국제관계에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다음해 왜가 축자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⁵⁾

井上光貞이 거시적 시각에서 왜의 군사행동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가 한반도 삼국이 수나라의 책봉체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안정이 찾아왔다고 보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는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서 책봉이 안정을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을까.

사서에는 조공국이 중국왕조에 대해 예(禮)를 가지고 접대해도 이런저런 이유가 붙어 어려움에 처해지고 멸망으로 내몰린 사례가 산견(散見)된다. 중국황제에 의한 덕화는 관념적으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병탄의 위기에 방치되었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은 중국 이외의 세력과도 외교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군신관계를 맺었다.¹⁶⁾ 신라와 고구려, 백제와 왜, 신라와 백제, 고구려와 돌궐, 고구려와 왜 관계도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아단

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87~88쪽).

14) 서영일이 당시 수와 고구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하다.

15)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1쪽.

16) 辻正博, 『中國王朝の 外交政策』 (서용석 譯) 『東國史學』 46, 2009, 271쪽.

성 전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아단성 전투의 시공간에 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587~8년 왜 사신의 고구려 방문이 수의 돌궐제압 및 중국통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591년~595년 왜군의 축자출병과 신라의 왜전(倭典)설치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넷째, 왜의 군사적 견제에 신라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고찰해 보았다.

다섯째, 아단성 전투이후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영토 재탈환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혔다. 하지만 시간은 좁혔다. 6세기말 7세기 초 초원과 중원 그리고 한반도 삼국과 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세밀하게 쪼갠 아주 짧은 동 시간대에 배치하여 선후관계를 엄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택한 것은 당시 국제상황의 급변 때문이다. 거대제국 수나라의 흥망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수는 급격히 팽창했고 급격히 수축·소멸했다. 진동의 파장은 거대했고, 국제상황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현재에 와서 보면 결론이 난 과거의 사실이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신라왕으로 재위해 있었던 진평왕(579~632)의 경우를 보자. 수의 돌궐 제압과 통일 그리고 고구려침공실패로 인한 패망, 수말의 내란을 극복하고 일어선 당이 유목제국을 파탄시키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급격한 변동의 과정을 그가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는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다. 중원과 초원의 우열 변동이 동아시아의 모든 정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대립하는 수당제국과 돌궐제국의 승패의 결과에 달려있었다. 언제나 초원의 유목제국이 힘을 잃을 때 고구려에 거대한 전쟁의 파고가 밀려왔고, 왜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국제정치가 본격적으

로 가동되었다. 본고에서는 돌궐이 수에게 제압된 584년 이후 고구려와 왜의 연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2. 阿旦城 戰役의 時空間 검토

590년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은 동쪽으로 기울어진 비스듬한 남북의 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대체로 임진강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원산만에 이르는 선으로 볼 수 있다.¹⁷⁾

온달이 공격한 아단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서울 성동구설과 단양 영춘설로 나뉘어져 있다. 둘 중 어디인가에 따라 고구려군대의 작전규모가 달라진다. 전자를 따른다면 고구려군대는 임진강을 넘어 가까운 서울의 성동 지역을 공략한 것이 되고, 후자를 따른다면 강원도 영서지역을 통과하여 소백산맥 부근의 충북 단양까지 남하한 것이 된다.

전자의 경우 행군거리 짧아 현실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 행군의 거리가 너무 길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제2하, 을묘(475) 조를 보면 고구려 장수왕대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쳐 함락시키고 백제왕을 사로잡아 처형한 장소가 아단성(阿旦城)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였다. “잘 모르겠다. 혹 지금의 영춘이라 이른다(未詳 或云 今 永春).” 물론 여기서 말한 한성의 아단성은 아차성이다. 그는 미상이라 하면서도 당시 일설로 전해지는 영춘설을 소개했다.¹⁸⁾ 그의 잘못된 주석과 일설의 소개는 현대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안정복이 ‘阿旦城’을 ‘阿旦城’으로 혼동했던 것과 같이 한자로 볼 때 둘은 유사하다. 19세기 말 「광개토왕비문」 비문이 발견되고 세상에 공개되면서

17)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18) 아차성을 아단성으로 잘못 보았지만, 안정복은 乙阿旦으로 전해온 영춘을 阿旦城으로 본 최초의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다(金顯吉, 「濶達과 阿旦城」, 『온달의 발자취』 15회 온달문화축제 기념 학술대회 2011. 10. 7(단양평생학습센터), 41쪽, 註17).

그 유사점은 힘을 얻었다. 영락 6년(396)에 광개토대왕이 아단성을 점령한 후 한성을 공격하여 백제왕에게 항복을 받았고,¹⁹⁾ 대왕의 수묘인들 가운데 아단성 출신이 보인다.²⁰⁾ 아단성이 서울의 아차산성이라는 설이 굳어졌다.²¹⁾

단순히 지명이 유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도 있었다. 松島惇, 池內宏, 이병도 등의 선학들이 안정복이 소개한 아단성 단양 영춘 비정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들은 아단성을 단양 영춘으로 볼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인지했을 것이다. 590년대 초 고구려군대가 신라 영토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차성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락 6년(396)에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아단성을 아차성으로 본다면 백제는 강 건너 고구려의 요새에서 뻗어 보이는 자리에 475년까지 수도를 두고 있었던 것이 된다고 한다.²²⁾ 물론 대안도 제시했다. 그 근거는 영춘면의 고구려 때 지명이 을아단(乙阿旦縣)이며,²³⁾ 을아단의 을은 ‘웃(上)이라는 뜻이고 아(阿)는 한강을 가리키는 아리수(阿利水)의 아리의 축음이 되며, 단(旦)은 성곡(城谷)의 뜻이다. 을아단은 한강 상류의 성곡이라는 의미가 되며 하류

19) “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首攻取寧八城白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城閭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

20) “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古樓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

21) 松島惇, 『阿旦城址考』, 『朝鮮』 136, 1926.
池內宏, 『眞興王 戊子巡境碑 新羅 東北境』, 『滿朝史研究』 上世2冊, 吉川弘文館, 1960, 26쪽.
이흥직 外 『國史新講』 일조각 1958, 56쪽.
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진단학회(을류문화사), 1959, 458쪽.
이기백, 『韓國史新論』 일조각, 1967, 67쪽.
한우근, 『韓國通史』 을류문화사, 1970, 58쪽.

이병도, 『廣開土王之 雄略』, 『韓國古代史의 研究』 1976, 84-86쪽.
이기동, 『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講座』 I 古代編, 일조각, 1982, 167쪽, 198쪽.

22) 이도학, 『永樂 6년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손보기정년논총』 1988, 92-93쪽.

23) 『삼국사기』 권35, 지리2 명주 나성군 조, “영현이 셋이었다. 子春縣은 본래 高句麗의 乙阿旦縣이었는데…”

의 아단에 대응하여 생겨난 지명이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단성은 하류와 상류 두 곳에 있었는데, 이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아단성을 을아단으로 일컬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24).

한걸음 나아간 신설이었다. 이후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는 아단성을 단양 온달산성으로 보았고,²⁵⁾ 여기에 동의하는 견해들이 이어졌다.²⁶⁾ 근자에 아차산성 발굴조사 결과 「북한(北漢)」, 「한산(漢山)〇」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이 북한산성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성벽의 축조 시기는 출토된 토기를 보아 7세기 전반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²⁷⁾

신라가 아차산성을 축조하기 이전 백제나 고구려에 의하여 사용된 방어 시설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이었다면 아차산성을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산주 거점은 아차산성일 가능성이 크며, 아단성의 위치도 단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²⁸⁾

필자도 아단성의 단양 비정설에 동의 한다. 물론 그것은 기존의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따르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존과 자료를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아단성은 『삼국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안목이다. 금석문에 보이는 그것은 논외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414년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아단성과 1145년에 편찬을 시작한 『삼국사기』의 그것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731년이란 장구한 시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삼국사기』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체계가 있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아단성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것이 같은 책 지리지 단양 영춘의 을아단현이다.

24) 이도학, 앞의 논문 98~99쪽.

25)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온달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89.

26) 김영관, 「三國爭霸期 아단성의 위치와 영유권」, 『고구려연구』 5, 1998, 127쪽.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27) 임효재·최종택·윤상덕·장은정,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212쪽.

28) 서영일, 앞의 논문.

그렇다고 해서 선학들이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문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고구려군이 충북의 단양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영서지역을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구려군이 영서지역의 신라요새들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남하하여 현 충북 단양의 지역까지 공격한 것이 된다.

아단성의 단양 비정설이 그 자체 다당성이 있는 논증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어 그 연구 성과가 반감된 느낌이 강하다. 이기백과 노태돈이 590년대 초 고구려의 남진은 인정하고 있지만 온달이 공격한 지역은 오늘날 단양지역이 아니라 서울지역(아차성)으로 본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²⁹⁾

온달의 아단성 전투를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과 연계하여 보는 견해까지 나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온달이 출정한 것은 영양왕 이후이며 동왕 14년에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다.³⁰⁾

아단성 전투의 시점을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본 견해였다. 하지만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양강왕(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상주하였다(及陽岡王即位, 濫達奏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급(及)’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양왕이 즉위(590년) 후 14년이 지난 603년에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기백과 노태돈이 590년대 초로 보았던 것도 이러한 표현 때문일 것이다.³¹⁾

고구려군대의 남하와 590년 고구려의 대수 현실외교는 상호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위협을 받던 고구려가 일단 수에 사죄하는 유화책을 선택했고, 수는 그해 10월 영양왕을 책봉하였으며, 591년 봉왕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

29) 이기백, 「濫達傳의 檢討」 『白山學報』 3 백산학회, 1967.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431쪽.

30)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31~32쪽.

31) 이기동은 ‘영양왕 초’로 보았다(李基東, 「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講座』 I 古代編, 일조각, 1982, 198쪽.).

들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수문제의 주문에 대한 고구려의 화답이며, 고구려가 외견상 제 3국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그것만 지켜진다면 수가 고구려의 안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³²⁾

앞서 西嶋定生도 이 시점(590)에 수로서는 아직 고구려에 대한 무력적 정별은 정책화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영양왕(嬰陽王)대화목(和陸)이 성립되어 '상개부의동삼사·요동군공·고구려왕'에 책봉됨으로 해서 양국의 긴장관계는 '일단'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³⁾

西嶋定生の 지적대로 영양왕이 책봉됨으로서 긴장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시 수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무력정별이 정책화되지 않았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약자인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질적인 긴장감은 책봉외교문제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었다. 역사상 책봉을 받고도, 양국의 결혼동맹이 이루어지고도 곧바로 전쟁을 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본질적 긴장감 해소는 무력의 우위밖에 없다.

책봉체제는 현실의 국제적 역학관계 위에 구축된 외피이다.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책봉체제 그 자체도 변동한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역학관계로서의 국제관계는 원칙적으로 책봉관계라는 외피 입은 것을 통해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고, 책봉관계의 논리자체가 역학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피책봉국이 예를 다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중국황제였다. 가령 그가 예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그때의 정치정세에 따른다. 유사한 경우에도 전혀 다른 대응을 취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³⁴⁾

32)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27쪽.

33) 西嶋定生,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1989, 87쪽(鄭孝雲,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학연, 1995, 44쪽 재인용).

34) 辻正博, 『中國王朝の 外交政策』(서용석 譯) 『東國史學』 46, 2009, 269쪽.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 수나라와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몰랐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평원)왕은 진(陳)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쌓아서 방어할 계책을 세웠다.”³⁵⁾ 라고 하고 있다.

589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는 전쟁준비에 들어갔고, 이듬해 수문제는 고구려에 서신을 보내 고구려가 변국이라고 칭하지만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그해 평원왕이 죽었다.³⁶⁾ 당시 고구려의 전력은 요동에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양왕이 수에 책봉을 받은 590년 이후 고구려가 방어할 계책을 세우는 것을 멈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양왕이 수나라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쪽에 전력을 투사하여 아단성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신라에 대한 공략을 앞둔 590년 고구려가 수에 대해서도 외교를 했지만 앞서倭와도 모종의 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

590년 고구려의 대수외교와 이로 인한 서북방면에서 거란말갈에 대한 세력 확장을 중지한³⁷⁾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공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³⁸⁾

3. 587~8년 고구려에 온 倭使

589년에 수가 남조의 진을 멸하고 중국 통일을 달성했다. 그것은 수가 북방의 돌궐을 격파한 결과이다. 발단은 582년 5월 23일 수문제가 북주의

35) 『삼국사기』 권19, 평원왕 32년(590) 조.

36) 앞의 주와 같음.

37) 이성제,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撃」 『震檀學報』 90, 2000, 6쪽, 9쪽.

38)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5쪽 참조.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참조.

정제(靜帝)를 살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⁹⁾ 사건은 돌궐이 수를 침략하는 빌미가 되었다. 동돌궐 이쉬바라 가한을 비롯한 5명의 가한이 이끄는 40만의 유목기병과 북제의 잔당인 고보령(高寶寧)의 군대가 장성을 넘었다.⁴⁰⁾ 처음 전황은 수에게 불리했다. 수문제의 황태자 용(勇)이 함양(咸陽)에 군대를 주둔하여 대비할 정도로 위협했다.⁴¹⁾

동에서 고보령이 유주(幽州)를 위협하고, 서에서는 타르두쉬 가한과 번라(藩羅)가한이 공격해왔다. 582년 12월 홍화(弘化)에서 방어하던 수군의 부장 달계장유(達溪長儒)가 패하고 난주(蘭州)도 함락되어 그 지역이 심한 약탈을 당했다.⁴²⁾ 이는 수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수도권지역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돌궐 서군의 주력을 이룬 서돌궐의 타르두쉬 가한이 본거지로 철수했고, 중군(中軍)의 이쉬바라 가한 역시 막북으로 귀환했다. 타르두쉬는 그가 중원의 전쟁에 개입한 사이에 예기치 않은 배후의 공격을 받았다.

그가 수의 주천(酒泉)을 공격할 때 중앙아시아 방면의 호탄, 이란의 사산조 페르시아, 남러시아의 에프탈 등이 서돌궐의 본거지를 공격해 왔다.⁴³⁾ 서돌궐이 중국 원정에 나선 틈을 타 서방에서 3개의 거대한 군대가 움직였던 것이다. 북방의 키르기즈도 돌궐의 사비설(沙毗說)을 공격했다.⁴⁴⁾

동돌궐의 이쉬바라 가한은 몽골초원 북쪽의 키르키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돌궐이 중국을 공격하는 사이에 사산조 페르시아, 에프탈, 호탄은 서쪽에서, 키르키즈는 북쪽에서 각각 협공을 가했다. 적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돌궐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불리한 상황은 돌궐 가한들의

39) 이하 수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정재훈의 다음 글을 참고했다. 丁載勳,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13, 2001, 78~84쪽.

40) 『자치통감』 권175, 진기9 선제 태건 14년(582) 조.

41) 『책부원귀』 권990, 외신부 備禦 조.

42) 『수서』 권84, 돌궐전

43) 『수서』 권84, 돌궐전

44) 『수서』 권84, 돌궐전

권위를 실추시켰고, 내부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583년 돌궐에 복속된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초원에는 기근이 일어나는 악재가 겹쳤다.

아마도 이 시기에 고구려 평원왕이 말갈기병을 동원해 동돌궐 이계찰(移稽察)의 군대를 격파했던 것 같다.⁴⁵⁾ 앞서 돌궐의 팽창으로 거란과 말갈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된 고구려에게 만회의 기회였을 수도 있다.

돌궐이 궁지에 몰리자 수문제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583년 4월에 백도천(白道川)에서 이쉬바라 가한을 크게 무찌르고, 직후 막북에서 벌어진 돌궐 가한들의 내홍(內訌)에 개입했다. 584년 돌궐에 내분이 본격화되었다. 그것은 20년 내전의 초반에 불과했다.

북중국과 초원에서 수가 패권을 잡아가고 있었다. 돌궐이 약화된 상태에서 수가 중국 통일을 이룩할 것이고, 그것은 고구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터였다. 이 시기부터 주변 세계에 대한 고구려의 국제정치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아닌가 한다.

584년 이후 말갈과 거란에 대한 세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⁴⁶⁾ 왜국에 대한 외교도 가동되었던 것 같다. 587~588년 고구려에 왜국의 사신이 왔다. 『속일본기』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壬子，從五位下狛朝臣秋麻呂言，本姓是阿倍也，但當石村池邊宮御宇聖朝，秋麻呂二世祖比等古臣使高麗國，因卽号狛，實非眞姓，請復本姓，許之”⁴⁷⁾

711년 12월이었다. 박조신추마려(狛朝臣秋麻呂)가 천황에게 자신의 본姓을 찾기를 청원했다. 본래 성은 아배(阿倍)인데 석손지변궁(用明天皇 587~588)대에 그의 2世祖인 비등고신(比等古臣)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간 까닭에 ‘박(狛)’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허락을 받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갔다.

45) 『수서』 권84, 돌궐전

46)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4쪽.

47) 『속일본기』 권5, 和銅 4年(711) 12月 壬子 조.

『속일본기』의 이 기록을 통해 아베비등고신 등이 587-588년 고구려사신으로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조신추마려의 이야기는 『일본서기』에서 587~588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와 왜 교류기록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87~588년 왜의 고구려 견사는 양국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행보였다. 앞서 570년 573년, 574년 3차례에 걸쳐 고구려 사신이 왜국에 갔다.⁴⁸⁾

西嶋定生은 570년 왜가 고구려 사신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푼 목적은, 임나가야멸망 후 왜와 백제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며, 임나가야부흥을 위해 고구려와 전략적 연대가 절실했다고 보았다.⁴⁹⁾

하지만 570년 당시 왜는 고구려 사신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 같다.⁵⁰⁾ 왜 조정이 고구려 사절의 도착을 안 것은 570년 4월이었다.⁵¹⁾ 왜 조정이 고구려 국왕의 국서를 접수한 시기는 25개월이 지난 572년 5월이었다.⁵²⁾ 573년 5월에 두 번째 고구려사절단이 왜국에 도착했지만 奈良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송사(送使)를 달려 보냈다.⁵³⁾

574년 5월에 고구려의 사신이 또 다시 왜국에 도착했다.⁵⁴⁾ 그들은 573년

48) 570, 573, 574년 고구려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신라의 팽창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보기도 했다(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 1971).

49)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2, 岩波書店 1962. 앞서 여기 대해 김선민은 사료 상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왜가 공동으로 신라와 대치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570, 573, 574년 왜가 고구려사신을 환대한 것은 멸망 후 왜가 대륙문물의 수입처로서 고구려에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선민, 「六세기 후반 倭의 高句麗 인식-『日本書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歴史研究』 22, 2005, 16쪽, 18-19쪽). 하지만 당시 왜는 고구려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587년 政變으로 蘇阿씨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야 양국은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50) 이성재, 「고구려의 대외외교와 양국관계의 추이」,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37~40쪽 참조.

51) 『일본서기』 卷19, 欽明天皇 31年(570) 4月 丙 “乘輿至自泊瀨柴籬宮. 遣東漢氏直糠兒. 葛城直難波迎召高麗使人.”

52)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元年(572) 5月 丙辰 丙 “天皇執高麗表疏授於大臣.”

53)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2年(573) 5月 丙寅朔 戊辰 丙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破船溺死者衆. 朝廷猜頻迷路. 不饗放還. 仍勅吉備海部直難波送高麗使.”

54)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3年(574) 5月 甲子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왜의 송사와 함께 귀국하던 2척의 배 가운데 1척만이 고구려에 도착했다고 하고 사건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구려사신의 행방불명과 그에 대한 처리문제는 논외로 하자.

교섭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신을 3차례 걸쳐 왜에 파견한 고구려였다. 573년 고구려에 도착한 왜의 송사는 크게 환대받았다. 대도수반일(大嶋首磐日)·협구수간협(狹丘首間狹) 등에게 정식 사신의 예에 준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고구려 국왕이 별도로 두터운 예로 대접했다고 한다.⁵⁵⁾ 일개 송사에게 그러한 환대를 한 것에는 왜국과 교섭을 원했던 고구려 평원왕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당시 북중국에 변화가 있었다. 무성제 고담(高湛, 537~568)이 죽은 후 무능한 군주 후주(後主)가 즉위하면서 강국이었던 북제가 급속히 쇠퇴하고, 수나라의 전신인 북주 우위가 확고해지고 있었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577년에 가서 북주의 실권자였던 양견(수문제)이 북제를 멸망시키고 북중국을 통일한다.

587~588년 왜국사절의 고구려 공식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원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584년 수가 돌궐을 제압하고 초원과 중원의 패권을 잡았다.

아마도 587~588년 직전에 고구려의 사절이 왜국에 갔고, 왜국의 사절단은 귀국하는 사절을 따라 고구려에 들어갔으며, 직후 고구려 사절의 배를 타고 왜국으로 귀국했을 것이다. 동해를 왜국 단독으로 항해하기 쉽지 않다. 앞서 573년 왜국에 왔던 고구려 사절은 왜의 송사 대도수반일·협구수간협 등을 데리고 고구려로 갔고, 574년 귀국길에도 왜의 송사는 고구려사절의 배에 함께 승선했다.

왜의 고구려 견사(遣使)를 이루어내기 위해 평원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

55)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3年(574) 7月 戊寅 조, “高麗使人入京奏曰.臣等去年相逐送使罷歸於國.臣等先至臣蕃.臣蕃即准使人之禮.禮饗大嶋首磐日等.高麗國王別以厚禮禮之.既而送使之船至今未到.故更謹遣使人并磐日等.請問臣使不來之意.天皇聞即數難波罪曰.欺誑朝廷.一也.溺殺隣使.二也.以茲大罪不合放還.以斷其罪.”

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왜의 고구려 견사가 그 내부의 정치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587년 7월 승불과 소아마자숙네(蘇阿馬子宿禰)가 불교수용 반대파인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⁵⁶⁾ 승불과의 득세는 왜의 외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불교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기치 아래 배불파인 물부씨를 타도하고 집권한 소아씨는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불교문물을 가져와야 했다. 소아대신(소아마자숙네)이 집권한 이후 고구려와 왜의 외교관계는 급물살을 탔던 것으로 보인다.

소아대신이 백제일변도의 왜국 외교를 다각화 하려했던 것은 고구려가 백제와는 또 다른 거대한 선진문물의 창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⁵⁷⁾ 왜사신의 고구려 방문 시기는 왜국에 정변이 있던 587년 7월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4. 倭의 신라 견제

소아대신은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는 대국 고구려에게도 원조를 받아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물론 그는 고구려와 백제가 숙적관계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쟁심을 이용해 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원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언급했지만 고구려에 왜사가 왔던 거의 같은 시기인 588년에 백제는 왜에 상당한 불교문물을 증여했다.

井上光貞은 590년 백제를 다녀온 승려들을 통해 왜국은 당시 급격히 변

56) 『일본서기』 卷21, 用明天皇 2年(587) 秋7月 “蘇我馬子宿禰大臣勸諸皇子與群臣。謀滅物守屋大連。…略…射墮大連於枝下。而誅大連并其子等。由是。大連之軍忽然自敗。合軍悉被皂衣。馳獵廣瀨勾原而散之。是役大連兒息與眷屬。或有逃匿葦原改姓換名者。或有逃亡不知所向者。”

57) 연민수,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5쪽, 참조.

화된 국제정세를 파악했고 한다.⁵⁸⁾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구려를 통해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백제에 다녀온 승려들을 통해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들을 확인했을 것이다.

584년 수나라를 견제해 오던 돌궐이 분열로 치닫고 있었고, 양자강 유역에 있는 陳은 약체였다. 당시 남조 진의 지배하에 있던 호수는 약 50만, 인구 200만 명에 불과했다. 중국의 중심은 여전히 화북 중원이었다. 화북에 강력한 통일정권이 나타나면 강남의 할거정권은 언제까지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였다.

남조의 멸망은 이미 시간문제로 보였다. 남조 진에게 불행한 것은 어리석은 후주(後主, 叔寶: 재위 582~589)가 상속한 것이었다.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측근으로 중용하여 국가의 초석인 무장들을 억압하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락을 즐기는 청년 천자 후주는 궁전을 꾸미고 놀이에 열중했다. 589년 수는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그 직후인 591년 왜국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켰다.

591년 8월 소아씨가 지배하는 奈良의 왜조정이었다. 송준천황(崇峻天皇)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하들과 대면했다.

천황이 군신에 조칙을 내려 “짐이 임나(任那)를 세우고자 생각하는데 경들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군신들이 “임나관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폐하께서 조칙한 바와 같습니다.”라고 아뢰었다.⁵⁹⁾

천황은 ‘임나회복’의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기에서 대해서 야마토정권이 임나를 지배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상투적인 기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서기』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일관성을 엿볼

58)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0쪽.

59)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8月. “秋八月庚戌朔, 天皇詔群臣曰, 朕思欲建任那, 卿等何如. 羣臣奏言, 可建任那官家, 皆同陛下所詔”.

수 있다.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왜의 의지이다. 이는 흠명천황에서 추고천황까지 4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서기』가 자기네 천황들의 의지표명까지 굳이 조작해 넣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⁶⁰⁾

591년 겨울 11월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거세원신(巨勢猿臣)·대반설연(大伴嚙連)·갈성기내량신(葛城烏奈良臣)으로 대장군을 삼고, 각 씨(氏)의 거련(臣連)으로 비장과 부대를 삼아 2만여 군사를 이끌고 구주 축자에 주둔하게 했다.⁶¹⁾

일본학계에서는 이 출병이 소위 신라로부터 왜가 '임나의 조(調)'를 수납받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본서기』의 맥락대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임나의 조'란 561년 임나(가야)지역을 차지한 신라에 대해 왜조정이 자신들의 임나에 대한 과거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調를 요구한 것이다. 야마토정권 내부의 위기와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임나의 조'의 실현을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축자에 출병을 강행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신라가 왜의 축자출병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4년간이나 축자 주둔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둔만 한 사실은 왜 조정의 '임나의 조'요구의 구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²⁾ 임나의 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라가 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591년에서 595년 사이에 왜군이 신라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군의 축자 주둔은 천황이 피살되는 정변에도 불과하

60) 이희진, 「가야의 멸망과정과 '任那調', '任那復興'의 의미」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61)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冬十一月己卯朔壬午. 差紀男麻呂宿禰. 巨勢臣比良夫. 狹臣. 大伴嚙連. 葛城烏奈良臣. 爲大將軍率氏臣連爲裨將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62) 金鉉球, 『大和朝廷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273~278쪽.

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다.

592년 11월 3일 왜국의 실권자 소아마자숙네가 사람을 시켜 천황을 죽였다.⁶³⁾ 왜 조정 내부의 충격이 있었다. 2일 후 사람을 축자에 보내 내란에 의해서 외사(外事)를 게을리 해서 안 된다고 당부했다.⁶⁴⁾

구주에 파견된 왜군들에게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특명을 내린 것은 천황도 갈아 치울 수 있는 실권자 소아마자숙네의 의지였다.⁶⁵⁾

소아대신은 국교를 새롭게 던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했다. 고구려와의 연화는 왜국이 신라에도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 조성이기도 하다.⁶⁶⁾ 왜의 구주 축자 병력집중은 백제와 숙원(宿怨)이 있으며, 고구려 온달장군의 침공을 받고 있던 신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다.

591년 왜는 축자출병과 함께 길사금(吉士金)을 신라에 보냈다. 그가 신라조정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신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3년(591) 2월의 기록은 주목된다.

봄 2월에 영객부(領客府)에 영(令) 2인을 두었다.

영객부는 외국의 사신을 응접하는 관청이다.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63)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5年(592) 10月 壬午 “蘇我馬子宿禰聞天皇所詔.恐嫌於己招聚儻者謀弑天皇”

64)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5年(592) 11月 丁未 “遣驛使於筑紫將軍所曰.依於內亂莫怠外事.”

65) 末松保和는 소아씨가 천황을 시해하기 위해 中央 諸氏의 병력을 미리 九州로 배치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200쪽).

66) 591년 倭는 筑紫出兵과 함께 吉士金을 신라에 보내 뭔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遣吉士金於新羅.遣吉士木蓮子於任那.問任那事.”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남북조시대 전개되었을 법한 술수는 제약되었고, 삼국에서 왜가 차지하는 전략상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성시는 보았다. 또한 595년 고구려 승려 혜자의 왜 도착이후, 양국의 긴밀한 통교가 있었다고 한다(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1990~9: 「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294~297쪽).

영객부 조에는 진평왕 43년(621)에 왜전을 영객전으로 고쳤다 하였고, 진덕왕 2년(651)에 영객부에 수 2인을 두었다고 하여 신라본기와 차이를 보인다. 직관지에 의하면 왜전이 영객전으로 개칭된 것이 621년이다. 그렇다면 위의 사료에서 말하는 영객부는 왜전일 가능성이 높다. 영을 2인 두었다는 것도 651년의 사실일 수가 있다.

591년에 왜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⁶⁷⁾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왜전 내부에 인원을 더 충원했다고 볼 수 있다. 591년 신라로 파견된 왜국의 사절단장 길사금은 왜전에서 응대를 받았을 것이다.

591년 2월 왜전의 설치나 인원증설은 이전에 신라는 왜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591년 11월 왜가 2만의 군대를 구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그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국적인 인력과 물자의 징발이 있어야 하며, 소식은 누구나 다 아는 왜국의 일반적인 사안이 된다.

5. 新羅王京 要塞化

지금까지 왜군의 축자출병과 여기에 대응하는 신라의 움직임이 『삼국사기』에 부재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왜군의 축자 주둔에 대한 신라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十三年 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十五年秋七月 改築明活城 周三千步 西兄山城 周二千步。”⁶⁸⁾

신라는 591년부터 남산성을 축성하고, 593년 명활산성(증축)과 서형산

67) 李成市도 591년에 倭典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李成市,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53쪽).

68)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3년(591)~15년(593) 조.

성⁶⁹⁾을 쌓았다. 남쪽의 남산신성, 동쪽의 명활산성, 서쪽의 서형산성은 수도 경주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라역사상 이토록 수도방어를 위한 축성을 집중적으로 한 사실은 기록상 찾아보기 힘들다.

신라조정이 왜의 침공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井上光貞은 왜군이 축자에 주둔하자, 591년 593년 신라가 수도경비 강화의 일환으로 축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⁷⁰⁾

「남산신성비」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비석은 591년(진평왕 13) 남산에 신성(新城)을 쌓고 그에 관여한 지방관 및 지방민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현재까지 10개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비의 첫머리에 “591년(신해)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법에 따라 쌓은 지 3년 만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한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2,800여 보에 달하는 남산신성축조에 전국적으로 인력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남산신성 제1·2·3비를 보아도 지금의 의령, 함안, 옥천, 상주, 선산 등에서 온 인력들이 온 것으로 보인다. 남산신성 제1·2·3비에 나타난 평균 거리를 평균화 하면 13보 2척 6촌 정도가 되고 전체의 길이 2,800여보를 나누면 대략 200이상이 된다. 성 축조에 200여 개의 집단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¹⁾

그 동원인원과 관련하여 산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권2 효성왕 조를 보자.

개원 10년 임술 10월에 처음으로 관문을 모화군(毛火郡)에 쌓았다. 지금의 모화촌이며, 경주 동남쪽 경계에 속한다. 이는 일본을 방어하는 변경의 울타리가 되었다. 주위는 6,792보(步) 5척(尺)이고 노역에는 3만 9,26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지휘한 것은 원진각간(元眞角干)이었다.⁷²⁾

69) 西兄山城은 『삼국사기』에 673년(신라 문무왕 13)에도 증축했다고 한다. 성의 남서쪽은 가파른 자연지형이고, 북쪽과 동쪽에 성벽이 있다. 둘레 약 2.9km이다.

70)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0~31쪽.

71)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1965, 410쪽.

李種旭, 「南山新城碑를 통해본 신라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25쪽.

72) 『삼국유사』 권2 효성왕 조.

722년 성덕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험악해지자 지금의 울산항에서 경주로 오는 길목인 모화에 관문성을 쌓았다. 울산항에 상륙한 일본군의 왕경 침공을 염두에 두고 쌓았던 요새였다. 근 6,800보에 달하는 성을 완성하는데 4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되었다.

물론 공사기간이 비슷하다면 여기에 30%가량의 길이에 해당하는 남산신성 축성에는 1만 2천명이 동원된 것으로 단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3천보에 달하는 명활산성 개축도 1만 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2천보에 달하는 서형산성수축에 1만 명 미만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특히 명활산성은 왜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삼국사기』 권3, 실성왕 4년(405년) 조에 왜병이 명활산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보이고,⁷³⁾ 431년(눌지왕 15)에도 왜적이 이 성을 포위·점령하려 하였다.⁷⁴⁾

확실히 명활산성은 왜의 침략이 우려되는 시점에 개축되었다. 신라 역사에는 ‘倭’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되어있다. 『삼국사기』신라 본기에 1대 신라왕인 혁거세 8년(기원전 50)부터 소지왕 22년(500)까지 총 59회의 왜 관련 기록이 보인다.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왜의 침략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빙·구혼·인질·절교 등의 외교기록을 제외하면 36회가 그에 해당된다. 왜가 내습한 지점, 신라가 내습한 왜와 싸운 장소, 혹 왜의 침구에 대비하여 성을 쌓은 곳으로 출목도(木出島) 1회·금성(金城) 4회·사도(沙道) 1회·사도성(沙道城) 1회·일예부(一禮部) 1회·장봉성(長峯城) 1회·장봉진(長峯鎭) 1회·풍도(風島) 2회·토암산(吐含山) 1회·독산(獨山) 3회·부현(斧峴) 1회·명활성(明活城) 2회·월성(月城) 1회·활개성(活開城) 1회·삼량성(敵良城) 1회·오도(五道) 1회·임해진(臨海鎭)·장봉진(長嶺鎭) 1회 등이 보인다.

바다를 건너온 왜인들은 주로 신라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침공했다.

73) 『삼국사기』 권3, 실성기사금 4년 조 “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74)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15년 조 “夏四月, 倭兵來侵東邊, 圍明活城, 無功而退.”

신라 왕경 주변의 3개의 요새 수축은 왜국의 위협에 대한 신라의 반응이 확실하다. 물론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전격적인 남침과 최악의 경우 백제의 협격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588년 백제는 왜에 상당한 문물의 수혜를 베풀었고, 591년 九州에 2만 병력을 집중하고 있던 왜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으며, 고구려 온달군대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축자출병 직전에 소아대신은 백제로부터 불교 관련 문물을 제공받았다.⁷⁵⁾ 왜군의 축자출병을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우호관계가 회복된 후 최초로 나온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백제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소아씨가 실권을 장악한 후 백제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며, 백제를 위해 축자 지역을 강화하여 신라를 견제함으로써 고구려와 대결 중인 백제를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것이 이 출병의 진상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595년 해자와 해충 등 려제 양국의 승려가 범흥사에 동시에 주석하게 된 것은 양국의 안정을 의미하며, 왜군이 그해 筑紫에서 철군⁷⁶⁾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한다.⁷⁷⁾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견해이다. 소아씨의 축자출병 단행은 백제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백제 위덕왕의 왜에 대한 원조는 막대했고, 또한 백제와 신라양국은 공존할 수 없는 숙적이었다. 하지만 왜군이 축자에 주둔하여 신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 백제가 신라에 취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기록상 보이지 않고, 직전에 신라가 백제를 위협했다는 기록이 없어 이 견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와의 전쟁에서 아버지(聖王)를 잃고, 아들을 먼저 보낸 위덕왕이 자신의 사적 슬픔과 고뇌를 극도로 절제하고 와신상담을 통해 백제의 국력을 축적해 나갔다고 본 견해가 오히려 주목된다.

75) 『일본서기』卷21, 崇峻天皇 元年(588) “是歲, 百濟國遣使并僧惠總, 令斤, 惠寔等, 獻佛舍利, 百濟國遣恩率首信, 德率益文, 那率福富味身等進調, 并獻佛舍利, 僧聆照律師, 令威, 惠衆, 惠宿, 道嚴, 令開等, 寺工太良未太, 文賈古子, 鑪盤博士將德白味淳, 瓦博士麻奈文奴, 陽貴文陵貴文, 昔麻帝彌, 畫工白加, 蘇我馬子宿禰請百濟僧等, 問受戒之法, 以善信尼等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 發遣學問, 壤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 始作法興寺, 此地名飛鳥眞神原, 亦名飛鳥苦田.”

76) 『일본서기』卷22, 推古天皇 3年(595)七月 “秋七月, 將軍等至自筑紫.”

77) 金鉉球, 『大和朝廷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1985, 276~278쪽.

당시 위덕왕이 백제의 미래를 위해 익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익산의 왕궁리유적 건설이 위덕왕대 후반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고학계의 견해에 주목하고, 익산 왕궁리유적은 그 동편 도로로 연결된 '제석사지'로 미루어 볼 때 왕의 집무처인 '왕궁'으로 건설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익산의 개발은 금강 중상류 일대를 북방성(웅진성), 동방성으로 방어했던 것과 비견되는 조치로서, 익산~전주 권역의 방어를 위해 권력의 중추를 새롭게 만들어 신라에 대응한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⁷⁸⁾

당시 백제 위덕왕은 신라와의 전쟁은 때가 이르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구려는 백제와 입장이 달랐다. 梅原猛은 591년 이후 왜군의 축지출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수나라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고구려왕은 자꾸 왜에 사신을 보냈다. 적극적으로 기술자와 승려를 보내어 경제적·문화적 원조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조를 보증이라도 하는 듯이 승준 5년과 추고 4년에 각각 2만 명 및 2만 5천 명의 군대를 축자에 파견했다. 이 신라 토벌을 이유로 하는 두 번에 걸친 군대 파견은 수의 침공에 대비하여 전부터 사이가 나쁜 신라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⁷⁹⁾ 직관이지만 탁견이라 할만하다.

78) 윤선태, 「위덕왕의 와신상담」 『박물관사람들』 2011년 가을 35호 6-7쪽. 또한 윤선태는 이러한 방어구도로 볼 때 백제의 남방성은 전주 남쪽 남원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602년에 가서 백제 무왕이 4만 대군을 동원하여 지리산 운동 팔랑치에 위치한 아막성을 공격한다. 이때 남원이 백제의 남방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윤선태, 「무왕과 미륵사」, 『미륵사지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고궁박물관 2010년 5월).

79) 梅原 猛 저, 정성환 편역, 「양제」 『인물로 보는 중국역사』 3, 신원문화사, 1994, 122쪽. 『일본서기』를 보면 정확히 승준 4년(591)부터 추고 3년(595)까지 2만, 추고 10년(602)에서 추고 3년(603)까지 2만 5천의 병력을 왜가 筑紫에 집결했고, 앞서 추고 8년(600)에는 1만의 왜병이 신라에 쳐들어와 5개성을 함락시켰다. 필자는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서영교, 「백제 무왕대 아막성 전투와 왜」, 『제9회 동국대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발표요지』, 2011년 7월 2일).

591년~595년 2만의 군대를 구주에 주둔시켜 근 4년 동안 신라를 위협했던 기남마려숙네·거세원신·대반설련·갈성오나량신 등 왜의 대장군들 가운데 2명은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거세원신은 흠명기 31년(570) 7월 시월 조에 근강(近江)에 도착한 고구려사신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⁸⁰⁾

『일본서기통증』에는 일서에 그가 어렸을 때 선사(船史) 왕진이(王辰爾)에게서 수업하였으며, 뒤에 백제에서 온 박사 왕유귀(王柳貴)에게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⁸¹⁾ 거세원신은 당시 외교세계의 공용어인 한문교육과 한반도 언어에 대해 배워 고구려사신을 접견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

570년은 고구려사신이 왜국에 최초로 온 해였다. 이때부터 고구려 사신을 접견한 거세원신은 직후 2차례에 걸쳐 왜국에 온 고구려사신을 접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쩌면 587~8년 왜국이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했을 수도 있다.

대반설련은 소아씨가 물부씨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601년 고구려에 파견되어 이듬해 백제를 통해 귀국했다.⁸²⁾ 대반설련은 이전에 고구려와의 외교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국가와 인연이 있었던 외교관이 계속해서 그 국가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 640년 10월 당에서 유학했던 고향흑마려(高向黑麻呂)가 신라를 거쳐倭에 귀국했다. 여기에는 신라의 사신도 동행했다.⁸³⁾ 그의 신라와의

80) 『일본서기』卷39, 欽明天皇 31年(570) 7月 “壬子朔.高麗使到于近江.” “是月.遣許勢臣 猿與吉士赤鳩發自難波津.”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共著,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27~36쪽 참조.

81)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共著, 앞의 책.

82) 『일본서기』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甲申朔 戊子. 遣大伴連嚙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丁未朔己酉. 大伴連嚙. 坂本臣糠手. 共至自百濟.”

83) 『일본서기』卷23, 舒明天皇 12年(640) 10月 乙亥 朔 “冬十月乙丑朔乙亥. 大唐學問僧清安.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646년 9월 고향흑마려는 신라에 파견되었고,⁸⁴⁾ 이듬해 고향흑마려는 신라의 대신 김춘추와 함께 왜국으로 향했다.⁸⁵⁾

640년 당에 입국한 고구려의 태자 환권을 요서(遼西) 유성(柳城)까지 마중나간 진대덕은 환권이 귀국할 때도 동행 했다. 그는 당의 답례사로 환권을 따라 고구려에 입국하여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다.⁸⁶⁾ 그것을 정리한 것이 ‘고려기’라고 한다.⁸⁷⁾

6. 阿旦城 전투 그리고 신라의 반격

왜국이 축자출병으로 신라의 병력은 남쪽에 묶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군대가 단양까지 남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로써 가능했다. 관련한 유일한 기록을 보자. 『삼국사기』 권45, 열전 5 온달전을 보자.

“양강왕(필자: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빼앗아 군현(郡縣)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한(痛恨)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신하를 불초(不肖)하다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니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雞立縣)과 죽령이서(竹嶺以西)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歸屬)시키지 않으면

學生高向漢人玄理傳新羅而至之.仍百濟.新羅朝貢之使共從來之”.

84) 『일본서기』 卷25, 大化 2年(646) 9月 조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85) 『일본서기』 卷25, 大化 3年(647) 是歲 조 “新羅遣上臣大阿浪金春秋等.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來獻孔雀一隻.鸚鵡一隻.仍以春秋爲質.春秋美姿顏善談矣.”

86) 『책부원구』 권974, 外臣部19 褒異1 唐太宗 貞觀 14년 12월 乙卯 조. “高麗長子桓權來朝遣職方郎中陳大德迎勞於柳城.”

『자치통감』 권196, 정관15년(641) 8월 기해일(10일) 조 “上遣職方郎中陳大德使高麗. 八月, 己亥, 自高麗還. 大德初入其境, 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 以綉綺遺其守者, 曰[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守者喜, 導之遊曆, 無所不至, …”

87) 吉田光男,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1977.

돌아오지 않겠다.] 하였다.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넘어져 죽었다.”

온달의 출정 시기는 왜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킨 591년 11월 전후의 일로 추측된다. 온달의 전쟁 목적은 전략적으로 수나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세력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있었다.⁸⁸⁾ 그는 ‘계립현과 죽령 이서’ 지역, ‘한북의 신라 군현’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계립현과 죽령이서’ 지역은 551년 고구려가 상실한 10군 및 6군에 해당되는 전 지역이다. 10군의 범위는 철령에서 죽령에 이르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 해당된다. 현재의 지명으로 제천, 영월, 원주, 가평, 화천, 김화, 양구, 회양 등으로 추정된다. 6군은 죽산, 여주, 이천, 하남, 과천, 부천, 서울 등으로 추정된다. 온달이 되찾으려는 ‘한북의 신라 군현’은 남한강에서 북한강 사이의 지역과 서울 일대로 볼 수 있다.⁸⁹⁾

고구려 군대가 소백산맥 부근 단양까지 남하하여 아단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신라가 병력과 물자를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온달이 단양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통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603년에 북한산성은 신라의 소유였다. 고구려군대는 한강 하류를 관통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주목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대략 일치되는 후일 신라의 수약주(牛首州, 首若州 또는 朔州)에 해당되는 군현이 온달의 주 공략 대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일신라기의 삭주로와 대체로 일치한다.

88)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5쪽 참조.

89)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77~179쪽, 231~235쪽.



<사진> 단양 온달산성의 모습, 아단성으로 비정하기도 하는 견해가 있다.
(사진 : 단양군청 제공)

온달이 단양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원·춘천은 물론 홍천·원주까지 점령을 해야 한다. 이곳에 대한 안정적인 점령이 이루어져야 단양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590년대 홍천·원주권에 대한 고구려의 점령 사실을 전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곳을 점령하지 않고 온달의 고구려군대가 단양까지 남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깊숙이 진격한 군대는 포위를 당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왜군의 筑紫 주둔 4년째인 594년 5월 10일 고구려에서 파견된 인물이 왜 조정에 도착했다.

추고(推古) 3년 5월 무오삭(戊午朔) 정묘(丁卯)에 고려승(高麗僧) 혜자(惠慈)가 귀화하였다. 그래서 성덕태자(皇太子)의 스승이 되었다.⁹⁰⁾

90) 『일본서기』 卷22, 推古天皇 5年(595) 5月 “戊午朔 丁卯. 高麗僧惠慈歸化. 則皇太子師之.”

이성시(李成市)의 지적대로 혜자는 왜에 대한 고구려의 전략적 외교와 결부되는 인물이다. 고구려 승려 혜자는 왜에 파견되어 20년 동안 머물면서, 섭정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불교사상을 가르친 인물로 유명하다. 혜자의 체재기간(594~615)과 수나라의 4회에 걸친 고구려 침공 기간(598~614)은 일치한다.

수와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이한 고구려의 왜에 대한 외교는 특별한 것이었다. 고구려 영양왕대(590~617)의 많은 인적·물적 교류는 『일본서기』 추고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승려 혜자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신라와 전쟁을 하면서 수나라를 대비한다.”는 새로운 전략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⁹¹⁾

고구려의 승려 혜자가 왜 조정에 도착한 그해 신라 진평왕이 ‘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⁹²⁾ 고구려의 공격과 왜의 견제로 신라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사신을 통해 수나라에 알려 졌을 수도 있다. 수와의 외교관계 재정립은 동맹세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특히 수와 국경을 접하지 않는 신라와 백제의 경우 그러했다.

604년 신라의 북진을 위한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6년 조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천주(南川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다시 설치하였다.

신라가 남천주에 주둔해 있던 남천정(南川停)을 북한산주로 이동시켰다. 신라 서북방면의 주력 사단인 남천정이 북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한산정으로 개명되었다. 먼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2년 전인 602년 8월에 신라가

91)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1990~9: 「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47~53쪽.

92) 『수서』 권81, 동이 신라전.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6년 조.

지리산 운봉의 아막성전투에서 백제군 주력 4만을 궤멸시켰기 때문이었다.

타격을 입은 백제는 당분간 잠잠할 터였다. 1년 전인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고, 신라진평왕이 1만의 원군을 이끌고 직접 가서 성공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⁹³⁾ 아막성에서 승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⁹⁴⁾

신라가 주력을 고구려와 인접한 곳으로 전진배치 시킨 3년 후인 607년 돌궐 계민가한의 아장(牙帳:천막궁정)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난 수문제는 진노했고, 수와 고구려 관계가 냉각되었다.⁹⁵⁾ 이듬해인 608년에 진평왕은 고구려가 신라를 자주 침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글을 원광에서 쓰게 했다.⁹⁶⁾ 수나라와 긴장관계 있던 고구려가 직전에도 신라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던 것 같다. 이어 그해 2월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방을 공격하여 8천명을 사로잡아 돌아갔고, 4월에 신라의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611년 수와 고구려의 2차 전쟁발발 직전이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지금의 북경부근이 탁군에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진평왕은 수양제에게 청사표(淸師表)를 봉(奉)했고, 양제가 이를 허락했다고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기록하고 있다.

백제 무왕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려고 하자 611년 2월에 사신 국지모(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석율(席律)을 백제에 보내 무왕과 서로 모의하게 했다. 공격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⁹⁷⁾ 애초 수양제가 기대한 것은 신라의 출사보다 백제의 그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수서』 권81,동이 백제전은 “이듬해

93)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4년·25년 조.

94) 서영교, 「백제 무왕대 아막성 전투와 왜」, 제9회 동국대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발표요지, 2011년 7월 2일.

95) 『수서』 권81,동이 고려전.

96)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

97) 『수서』 권81,동이 백제전.

(612) (수나라의) 육군(六軍)이 요수(遼水)를 건너니, (백제) 무왕(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수군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兩端策)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

611년 10월 신라 서쪽의 전략적 요충지 가잠성을 백제가 공격했다. 백제는 신라가 고구려와 싸움에 주공을 투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진평왕이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신라의 신주정(북한산정), 상주정, 하주정을 원군으로 파견되었다. 7년 전 북쪽 북산산주로 전진 배치된 신주정(북한산정)까지 가잠성을 백제군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남하했다.

하지만 신라의 3개 사단은 백제군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철수하였다. 포위된 가잠성을 지키던 성주 찬덕(讚德)은 분개하여 병졸에게 말했다. “3주(州)의 군대와 장수가 적이 강함을 보고 진격하지 않고, 성이 위태로운데도 구하지 않으니 이는 의리 없는 행동이다. 의리 없게 사는 것보다 의리 없게 죽는 것이 낫겠다.”⁹⁸⁾ 찬덕은 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성 내부에 있는 큰 느티나무(槐)에 머리를 쳐 박고 자살했다.

신라의 원군이 철수하자 가잠성은 함락되었다. 만성적인 전쟁상태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삼국의 왕들에게 엄습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신라가 가잠성을 포기한 것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소모를 피하고자 했던 대국적인 결정이었다.

진평왕은 612년 수나라와 전쟁상태인 고구려를 공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613년 수나라의 사신이 신라의 왕경에 도착했다. 그해 2월 수양제는 다시 천하의 군대를 모집하고 현 북경 부근의 탁군에 집결시킨 후 4월 친히 요하 동쪽으로 진격하는 외중이었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 조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을 7월에 수나라 사신 왕세(王世義)가 황룡사에 이르자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열었는데 원광 등의 법사를 맞이하여 강설하였다.

98) 『삼국사기』 권47, 해론전.

수나라의 사신은 앞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지은 원광이 주재하는 황룡사의 백고좌회에 참석했다. 신라는 594년 수에 사신을 보내어 책봉 받은 이래 자주 견사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평왕 조를 보면 596년, 600년, 602년, 604, 605년, 608년, 611년, 613년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수서』에는 615년의 견사 사실만 명기되어 있다. 이는 수가 신라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수서』 권81, 신라전에 “大業以來 歲遣朝貢”라고 하여 수양제 이래에 해마다 조공을 했다하고 있는데 이는 세력이 미미한 해(奚)나 실위(室韋) 등에서도 확인된다.⁹⁹⁾ 신라왕경에 수 사신 왕세의 등장은 이전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신라에 대한 수양제의 새로운 반응이었다. 신라가 고구려 남쪽 지대를 공격·점령하여 약속을 지키자 수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서』 권81, 고려전에서 삼경(三京)과 관위(官位)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갑자기 삽입된 기록은 이러하다. “신라와는 늘 서로 침공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수나라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만성적인 전쟁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신라에게는 고구려로부터 상실한 한강유역 일부 지역들을 회복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한강 상류를 관통하는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선을 회복해야 하류에 대한 지배가 공고해지며, 경기만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¹⁰⁰⁾ 북진과 한강유역 확보·유지만이 고구

99) 여호규는 수가 신라와의 관계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다. (여호규, 『6세기 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9~10쪽·註30).

100) 중국의 경우 양자강 북쪽의 왕조가 남쪽을 정복해야 할 때 항상 양자강의 상류인 四川을 먼저 점령해야 했다. 秦, 晉, 隋, 元 등이 그러했다. 상류에서 보급품을 모아 하류로 이동시키기 용이하다. 전쟁에서 언제나 상류점령이 관건이었다. 함안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들은 6세기 말 경북의 중상류 여러 지역에서 낙동강을 타고 하류 함안으로 운반된 수취 물자들의 부찰이라 한다(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新羅木簡의 用途」 『진단학보』 88, 1999). 「광개토왕비문」에서 대왕이 아단성 등 많은 성을 점령한 후 아리수(한강)를 건너 漢城을 깨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아단성 등 많은 성들은 한강중상류에 위치한 乙阿므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백제왕경 漢城이 유지되는 근간 가운데 하나는 중상류에서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물자였을 것이다.

려·백제·왜에 3면 포위된 신라가 중원의 통일국가와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찍이 今西龍은 1929년 『思想と生活』 6권 제7·9에 그가 기고한 「圓光法師傳」에서 진평왕대 당시 신라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진평왕 치세가 되면 삼국이 모두 한 단계 진보하여 특히 신라의 강성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이 가해졌다. 일본도 임나부흥문제로 언제 신라를 공격해 올지도 몰랐다.”¹⁰¹⁾

591년에서 611년까지 20년 사이에 해당되는 확인 가능한 여러 관련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신라는 612년에 수와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신라가 수를 도와 외교적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591~595년 고구려에게 상실한 땅을 탈환하겠다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 하나의 움직임으로 복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행에 옮겨질 확률도 높다.

얼마 후 중원에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 629년 새로 일어난 당이 대륙의 패권을 잡아가고 있을 때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했다.¹⁰²⁾ 기존에 낭비성을 청주의 상당산성으로 비정해 왔지만 근자에 와서 그곳을 경기도 포천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낭비성이 청주이고 고구려군대가 그곳까지 점령한 상태라면 당시 신라가 한강 하류의 북한산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낭비성은 현 포천인 고구려 비성군(臂城郡)에서 비롯된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낭비성은 비성군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 현 포천 지역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¹⁰³⁾

101) 今西龍 著, 이부오·하시모토 譯, 『新羅史研究』, 서경, 2008, 330쪽.

102) 『삼국사기』 권3, 진평왕 51년 가을 8월 조. “五十一年秋八月 王遣大將龍春·舒玄 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望之懼 殊無關心 庾信曰 吾聞振頰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劍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擄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103)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단국대 사학회 1995;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35~248쪽.

신라 진평왕은 이번에도 중국에서 강력한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때 고구려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629년은 당을 놀러왔던 동돌궐이 내분과 자연재앙에 휩싸이면서 힘을 잃었고, 당이 패자로 부상하는 해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그해 영류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봉역도를 바치고 동돌궐의 힐리극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는 서한을 올렸다.

629년 고구려가 긴장했던 것은 확실하며, 주력을 요동지역에 집중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는 이틈을 타서 방어가 전보다 약화된 고구려 남쪽지역인 낭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⁴⁾

진평왕대 북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철원도호부 조를 보자.

누정 고석정(孤石亭): “부의 동남쪽으로 30리에 있다. 바윗돌이 우뚝이 서서 동쪽으로 못물을 굽어본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신라 진평왕(眞平王)과 고려 충숙왕(忠肅王)이 일찍이 이 정자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 고려의 중(僧) 무외(無畏)의 기문에, “철원군의 남쪽으로 만여 보를 가면 고석정(孤石亭)이 있는데, 큰 바위가 우뚝 솟았으니 거의 3백 척이나 되고 둘레가 십여 길이나 된다. 바위를 타고서 올라가면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기어 들어가면 방과 같다. 층대(層臺)에는 여남은 명이 앉을 만하다. 그 곁에 신라 진평왕이 남긴 비석이 있다…”

“고석성(孤石城) : 고석정(孤石亭) 옆에 있는데 둘로 썩었다. 둘레가 2천8백92 척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104) 서영일은 “백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을 지키기 위해 629년 낭비성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서영일, 앞의 책 249쪽). 서영일의 지적은 신라가 수도와 멀지 않은 남강유역을 백제가 잠식해오는 와중에도 신라가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고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다. 624년 백제는 지리산을 넘어 신라의 영토였던 남강유역을 점령했다. 신라는 안방에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기회만 있으면 북진을 했다. 상황은 수대와 같이 반복되었다. 당시 고구려, 백제, 왜 3국의 포위망 속에서 신라가 손을 내밀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다.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당과 통할 수 있는 경기만을 지켜내야 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원, 포천, 서울 북부지역, 강화도에 이르는 선을 유지해야 했고, 춘천에 우수정을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했다.

고려의 승려 무외(無畏)는 철원 고석정에 진평왕이 비석을 세운 것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리게 되었다. 629년 이후 진평왕이 사망하는 632년 이전까지, 왕은 포천 낭비성을 근거지로 하여 철원에 있는 고구려군대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고석성 옆에 비석을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¹⁰⁵⁾

신라는 629년에 가서 의정부를 지나 포천을 점령하고, 진평왕이 사망하는 632년 이전에 철원을 차지하여 영서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평왕의 철원 점령은 그 동남쪽에 위치한 춘천지역의 신라편입을 의미한다. 지형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신라의 철원의 점령은 춘천의 고립을 의미한다. 언제나 북쪽에서 영서지역으로 향하는 군대는 철원을 거쳐 금화·화천을 지나 춘천으로 들어간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 조를 보면 선덕여왕 6년(637)에 우수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었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¹⁰⁶⁾ 우수주의 주치인 춘천에 군주(軍主)가 부임했다는 것은 신라가 육정(六停)의 하나인 우수주정(牛首州亭)이란 소위 사단급 부대를 그곳에 창설했거나 동해안 고성 이북 방면에서 이동 배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⁷⁾

신라가 중요한 전략적 지점인 춘천을 637년에 가서야 고구려로부터 회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철원과 마찬가지로 춘천 또한 고구려 침공투터의 길목이었던 곳으로 비워 둘 수 없었다. 신라가 철원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영서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춘천에 중요 사단이 주둔해 있어야 했다. 어쩌면 직전에 철원을 고구려로부터 상실하고 춘천에 전력을 집중시킨 조

105) 고석성이 신라에 의해 세워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고려시대 이전의 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진평왕이 철원에 있는 신라의 지배거점인 城과 가까운 곳에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95: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49쪽 참조.

106) “朔州 賈耽《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盖今新羅北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107)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조 “四曰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치였을 수도 있다.

629년 신라의 포천점령과 이어진 철원의 점령 그리고 춘천에 우수정 설치하는 다음 세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591년 신라가 아단성 전투를 즈음하여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612년 고수전쟁기에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수 멸망 후 고구려의 역공세를 받고 그 지역을 일부 상실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629년에 상황이 유리해지자 신라가 다시 북진을 했고, 다시 고구려의 반격으로 철원을 상실하고 637년 춘천에 우수정을 배치했을 수도 있다.

우수정 설치로부터 5년 후인 642년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 함락되고 김춘추가 평양을 찾았다. 김춘추가 청병을 하자 고구려 측에서는 죽령 서북의 영토반환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수침공기부터 632년 이전까지 신라 진평왕이 잠식한 고구려의 남방영토를 반환하라는 요구였을 수도 있다.

7. 맺음말

6세기 말 7세기 초 모든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축은 대립하는 중원과 초원의 승패의 결과에 달려있었다

582년 중원에서 변화가 있었다. 수나라의 주인 양견(수문제)은 돌궐에 평화를 조건으로 해마다 무상증여했던 엄청난 양의 비단을 끊었다. 비단을 페르시아와 동로마제국 등에 유통시켜 거리의 이익을 취했던 동서돌궐이 군대를 일으켰다.

동서 돌궐의 칸이 이끄는 40만 유목기병과 북제의 잔당인 고보령의 말갈·거란의 기병이 만리장성을 넘었다. 전황은 수에게 불리했다. 수문제의 황태자 용이 함양에 군대를 주둔하여 대비할 정도로 위협했다. 582년 12월 난주가 함락되어 수나라의 수도권지역까지 위협받았다.

상황이 반전되었다. 서돌궐의 중국원정을 틈타 이란의 사산조 페르시아,

남러시아의 에프탈 등이 그 본거지를 공격했다. 서돌궐의 타르두쉬 가한이 중국에서 철수했다. 동돌궐의 이쉬바라칸 역시 초원으로 귀환했다. 돌궐 북방의 키르키즈와 만주방면에서 고구려가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수서』에 고구려 평원왕이 말갈기병을 동원해 동돌궐 이계찰의 군대를 격파한 기록이 보인다. 돌궐에게 잠식당한 거란과 말갈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돌궐에 자연재앙까지 겹쳤다. 초원에 한발은 기근을 가져왔고, 내분으로 이어졌다. 584년 수 문제는 돌궐 칸들의 내분에 개입했다. 이로서 초원에 대한 수나라의 우위가 확보되었다.

고구려 평원왕은 돌궐의 약화가 수의 중국 통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했다. 고구려의 국제정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584년 고구려가 거란과 말갈에 대한 세력을 확장했고, 587~588년을 전후하여 고구려의 사신이 왜국에 갔고 왜국의 사신 아배(阿倍比等古臣) 등이 고구려에 왔다. 고구려는 전부터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왜가 구주에 대군을 집중시킬 것을 요청한 듯하다.

587년 7월 왜국에 정변이 있었다. 송불파인 소아씨가 배불파인 물부씨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았다. 소아씨는 불교문물을 원조받기 위해 고구려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했다.

당시 수는 이제 막 중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남조 진은 약체였다.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호수 약 50만, 인구 200만 명에 불과했다. 화북에 강력한 통일정권이 나타나면 강남(江南)의 할거정권은 언제까지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였다. 수나라의 육일승천을 본 진나라의 황제 진숙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락에 열중했다.

587~588년 고구려에 왔던 왜국 사신이 귀국했을 즈음 진은 멸망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한 직후인 591년부터 595년까지 4년 넘게 왜국은 구주에 병력 2만을 집중시켰다.

위기를 느낀 신라 진평왕은 수도의 요새화작업에 들어갔다. 591년 남산성을 축성하고, 593년 명활산성과 서형산성을 쌓았다. 거대한 인력동원이었

다. 3천보에 달하는 남산신성과 명활산성축성에는 각각 1만 2천명, 2천보에 달하는 서형산성수축에 1만 미만이 동원된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

왜국이 신라의 병력을 남쪽에 묶어 놓으려 하자 북쪽에서 고구려군이 남하했다. 『삼국사기』는 그 선봉 온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계림 현과 죽령이서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나아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구려 군대가 단양까지 깊숙이 들어와 전투가 벌어졌다.

온달의 출정 시기는 왜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킨 591년 11월 전후의 일로 보인다. 온달은 철원-춘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원주부근의 영서지역까지 점령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단양 영춘면의 을아단을 공격한 듯하다.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일치되는 루터이다. 왜의 견제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신라가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남쪽에서 신라의 역량을 소진시킨 고구려는 598년에 말갈기병 1만을 동원해 수나라의 요서지역을 공격했다. 이전부터 수나라가 말갈과 거란의 제부족의 이탈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말갈과 거란은 고구려의 주요 기병 자원이기도 했다.

그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왔다. 『수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원(영양왕)이 말갈의 무리 1만여 명을 이끌고 요서를 침입하였다. … 고조(수양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 경(璟)을 원수(元帥)로 삼고 수군과 육군을 총동원하여 고려를 치게 했다. … 이때 군량수송이 중단되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군사가 임유관을 나와서는 전염병을 얻어 기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수나라의 군대가 기세를 떨치지 못한 것은 군량수송 차질과 전염병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때 동서 돌궐이 수의 북방영역을 침공했다. 고구려 침공에 나섰던 한왕 양, 고경 등 수나라 장군들은 요동에서 군대를 이끌고 초원으로 향해야 했다. 수나라 장군 두연(杜彦)이 돌궐의 남하를 막는 북방 최전선 사주의 총관으로¹⁰⁸ 양소(楊素)는 영주(靈州)행군총관으로 임명되

었다. 서돌궐 달두 가한과 동돌궐 도람 가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였다.¹⁰⁹⁾

일본열도에서 몽골초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서 치밀한 공작을 펼치는 고구려였다. 『수서』를 보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기를 청했던 육지명(陸知命)은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는 북방(燕垂)을 이리처럼 탐욕스럽게 엿보고 있습니다.”¹¹⁰⁾

적어도 598년부터 615년까지 고구려는 수나라와 전쟁으로 요동전선에 군대가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이 틈을 타고 북진해와 온달장군에게 잃었던 땅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수서』 권81, 고려전은 전한다. “신라와는 늘 서로 침공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604년에 북한산주로 주력사단(한산정)을 전진 배치시킨 신라는 611년 백제가 가잠성을 공격하자 그곳에 3개주의 군대를 보냈다. 그 가운데 신주정(한산정)도 있었다. 하지만 원군은 백제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가잠성을 포기했다. 고구려와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전력을 소모할 수 없었다. 612년 진평왕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집중하자 북진을 단행했다.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상당히 회복했던 것 같다.

629년에도 돌궐은 내분에 휩싸였고, 수가 망하고 등장한 당나라가 패권을 잡았다. 그러자 신라는 다시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 이끄는 신라군대가 현 포천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시켰고, 632년 이전에 철원을 장악하고 637년 춘천에 우수정을 설치 또는 배치했다.

629년 신라의 포천 낭비성 점령과 이어진 철원의 점령과 춘천에 우수정 설치의 다음 세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먼저 591년 신라가 아단성 전투를 즈음하여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612년 고수전쟁기에 완전히 회복했다

108) 『수서』 권55, 杜彥貞.

109) 『수서』 권48, 楊素貞.

110) 『수서』 권66, 陸知命傳 請使高麗, 曰: “臣聞聖人當辰, 物色芻蕘, 匹夫奔踈, 或陳狂瞽, 伏願暫輟旒纒, 覽臣所謁. 昔軒轅馭歷, 既緩夙沙之誅, 虞舜握圖, 猶稽有苗之伐, 陛下當百代之末, 膺千載之期, 四海廓清, 三邊底定, 唯高麗小豎, 狼顧燕垂, 王度含弘, 每懷遵養者, 良由惡殺好生, 欲諭之以德也. 臣請以一節, 宣示皇風, 使彼君臣面縛闕下.”

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수 멸망 후 고구려의 공세를 받고 그 지역을 일부 상실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637년 우수정을 춘천에 두게 된 것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철원을 상실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642년 김춘추가 평양에 오기 5년 전의 일이었다. 연개소문은 현실지향적인 신라를 믿을 수 없었다. 김춘추는 세계제국 당과 전쟁을 직전에 둔 고구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평양에 온 것이 아닌가.

김춘추가 돌아간 이듬해인 643년 연개소문은 신라를 공격했다. 직후 연개소문을 만난 당의 사신 상리현장은 신라에 대한 공격중지를 요구했다. 『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에 전하는 연개소문은 답변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수(隋)가 수 침공시 신라가 고구려의 땅 500리를 침탈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중지할 수 없다.”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다.

(원고투고일 : 2011. 9. 30,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嬰陽王, 眞平王, 淵蓋蘇文, 濫達, 阿且城, 阿且城, 乙阿且, 椴岑城, 蘇阿氏, 筑紫出兵,

<ABSTRACT>

Sui, China-Goguryeo War & Japan

Seo, Young-kyo

In 584 the powerful country, Sui(隋) faced China unification. Goguryeo couldn't avoid the war against Sui(隋) in the near future.

If war broke out between Goguryeo and Sui(隋) it would be unambiguous that Silla would attack the south of Goguryeo. Goguryeo needed the partner to prevent Goguryeo from the attack of Silla.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Goguryeo began in earnest.

In 587 The envoy of Goguryeo were sent to Japan and the envoys of Japan were sent to Goguryeo. Goguryeo was seeking to counterbalance Silla through Japan. Japan posted a massive concentration of 20,000 soldiers on Kyusu(九州) for four years from 591 to 595.

Silla was afraid of the invasion of Japan and started to construct a fortress. Three fortresses were built in the capital of Silla from 592 to 593. The main-force units were sent to the eastern coast to prevent the attack of Japan.

When Silla put a massive concentration of soldiers on the south line Goguryeo invaded and occupied the south of Silla in the early 590.

Key Words : Kogureyo King, Yeungyang, Silla King, Jinpyeong, Yeon-gaesomun, General Ondal, Acha Fortress, Adan Castle, The Upper Adan, Kajam fortress, Soga Clan, The Dispatch of Japanese Troops to Kyūshū.